

6/2/19

설교 제목: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 회당장 딸을 실리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5 장 21-43 절

- (막 5: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절관주** 마 9:1, 눅 8:40
- (막 5: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 (막 5: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절관주** 마 9:18
- (막 5: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 (막 5: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절관주** 레 15:25
- (막 5: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 (막 5: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 (막 5: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절관주** 출 15:26
- (막 5: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 (막 5: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막 5: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 (막 5: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 (막 5: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 (막 5: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 (막 5: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 (막 5: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막 5: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관주** 마 17:1, 마 26:37
- (막 5: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 (막 5: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막 5: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 (막 5: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 (막 5: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 (막 5: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죽어 가는 어린 딸을 살려 주시려 가는 길에 열 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혈루증을 고쳐 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죽어 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서 그녀를 살려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라사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들린 자를 만나 그에게 기거하고 있던 군대 귀신을 2 천 마리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2 천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바다 속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가는 무슨 더 큰 손해를 볼지 모르겠다 싶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바닷가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 들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5: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막 5: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막 5: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회당장은 집회의 우두 머리로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렸으며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중 하나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안수하여 살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소문을 들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어린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모였던 큰 무리들도 따라갑니다.

(막 5: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깁니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아니 지금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당장 쟈 걸음으로 날래 달려간다 해도 살려낼까 말까 한데 중간에 이런 일로 시간을 지체하다니.....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뭐라 딱히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막 5: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막 5: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막 5: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막 5: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리 중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 출혈증입니다.

월경도 아닌데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 나오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빈혈을 일으켜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매장을 당했습니다.

(레 1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 갔으나 병이 낫기는 커녕 점점 중해만 갔습니다.

설상가상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탕진하여 바닥이 났고 이제 소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더러운 군대 귀신들린 자도 고쳐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무리들 속을 파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막 5: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 5: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막 5: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막 5: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막 5: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으십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대게 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 옷에 손을 댄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은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막 5: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은 혈루증을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막 5: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누가 와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부음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낙심되고 두려웠습니다.

청을 드리자마자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허비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5: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도 최소한 살아는
있어야 고치지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막 5: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막 5: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막 5:40) 그들이 비웃더라

유대인은 상을 당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흰화하는 사람 두 명과 울어 주는 여인
한 사람은 반드시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흰화’는 피리 부는 것을 말하고 울어 주는 일이란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이로는 장로이고 회당장이며 그 마을에서 유지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사서 흰화하고
애곡했기 때문에 그의 온 집이 흰화하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권세가 그의 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아니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시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 죽음은 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식을 취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죽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막 5:40)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막 5: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막 5: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놀랍게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또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막 5: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소녀가 육체적으로 분명히 살았음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말씀을 나누셨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중 구조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이 전개된 것이라고요?

천만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고 허락을 받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중간에 해찰을 띤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딸이 이미 죽었다는 전갈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은 딸을 살려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선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자 야이로 회당장의 측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기자 그 믿음으로 딸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질 수 있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